

성가소비녀회 (聖家小婢女會)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www.holyfamily.or.kr

2017년 12월 25일
제6호

강생의 길을 따라

Along to the way of Incarnation



0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46, Gireum-ro 9-gil, Seongbuk-gu, Seoul, Korea
Tel 02)940-5800
Fax 02)943-1603



나는 모든 것을 버렸고,
 하느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내가 있음으로써
 나름대로 이상을 완수하는 것이기에
 나는 진정으로 선교사임을 느낀다.

(성재덕신부 제2집 83쪽)

I sincerely feel that I am a missionary since
 I have abandoned all and I am where God has
 called me to be leading me to fulfill my ideals.

- | | | |
|----|---------------------------------------|--------------|
| 04 | 하느님을 전하는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 총장 이 프리스카 수녀 |
| 07 | 선교 지역 소개 : 베트남 | 편집부 |
| 14 | 수녀님은 베트남 사람 | 류 베르뇌시메온 수녀 |
| 17 |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 이 모린 수녀 |
| 22 |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 김 온유 수녀 |
| 27 |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 이 기쁨 수녀 |
| 33 | 하늘 나라의 시민 | 오 클라우디아 수녀 |
| 36 | 룩파 성을 아시나요? | 이 마리아콜베 수녀 |
| 42 | 어머니날 | 김 마리비타 수녀 |
| 46 | 볼리비아 해외선교 여정의 시작! | 정 호영베드로 수녀 |
| 50 |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김 로사리아 수녀 |
| 53 | 후원 | |
| 54 | 해외 선교 지역 | |

2017년 제6호

「강생의 길을 따라」 선교지는 성가소비녀회 설립일에 연간 1회 발행하며,
 모든 이들과 함께 선교 체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발행처 성가소비녀회 0272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발행인 이 프리스카 수녀

발행일 2017년 12월 25일

홈페이지 www.holyfamily.or.kr

표지사진 볼리비아 비루비루 탁아소 아이들

하느님을 전하는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니까?

총장 이 프리스카 수녀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하느님의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는 일이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사명입니다. 봉헌된 이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기쁨이, 언제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입니다. 이는 세상의 것이 아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 기쁨이 나오니까? 여러분 마음,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하느님을 위한 간절한 마음, 하느님을 선포하고 알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이, 관심이 있습니까?”(『기뻐하십시오』 40쪽)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더욱이 수도자들은 예언적 사명이라는 고유한 소명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명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시는군요. 해외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수녀님들에게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라는 설립자 신부님의 당부 말씀 속에서 더욱 깊이깊이 내려가고 있음을 봅니다. 원주민들의 가난하지만 순진한 얼굴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 또한 벅차오르기도 하겠지요.

수녀님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대부분 가난한 나라이기에 참으로 수녀님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들을 예수님으로 만나기가 어렵겠구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보호하고 돌보고 간호하고 치료하고 베푸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들이 나와 동등한 사람들이라는 마음이 아님을 발견하고 놀라기도 하겠지요.

예언적 사명에서 중심은 하느님과 관계입니다.

하느님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 바로 하느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려주시는 것 아닐까요? 설립자 신부님께서 는 역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다”라고.

예언자는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코 교종은 『복음의 기쁨』(281-283 참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재기도(전구)는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는 힘입니다. 중재의 기도에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중재기도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이의 삶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느님을 알아보는... 실제로는 그분께서 항상 그곳에 먼저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는 기도”라고 하십니다.



1982년 필라델피아 한인성당 파견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그분을 마주 보는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자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예언적 사명을 수행하는 우리 역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선교지의 체험을 통하여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세계를 정치적 논리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다. 그는 세계를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본다. 예언자가 마주 보는 것은 자신의 신앙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을 마주 본다. 하나님을 감지하는 것은 무한한 선, 무한한 지, 무한한 미를 감지하는 것. 그런 것이야말로 기쁨을 주는 감각이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 『예언자』에서)

‘예언적 양성예로의 부르심’이라는 이 소명은 수도생활 초기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교지에서 수녀님들이 겪는 그 많은 어려움 중에도 기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오늘도 그분께 수녀님들을 의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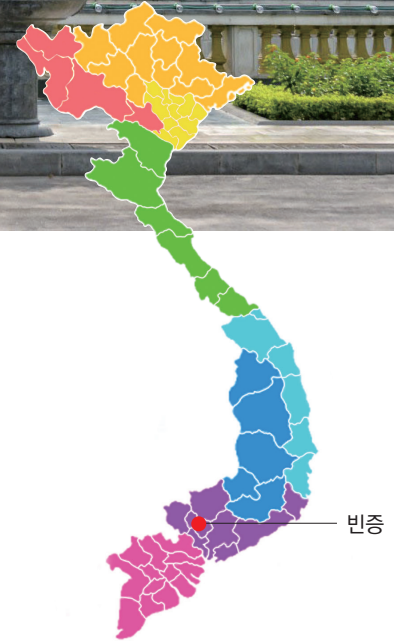
2017년은 참으로 많은 해외 선교에 파견된 수녀님들이 다녀갔습니다. 덕분에 앉아서 우리 수도회가 파견한 일곱 나라(이탈리아를 포함하여)를 만난 셈이지요. 수녀님들 또한 모국 방문을 통해 힘과 활기를 받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에서 참 많이 감사드렸습니다. 또한 설문 작업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은 우리 수도회가 해외로 수녀님들을 파견한 지 35년(1982년 필라델피아 한인 성당 파견)이 되는 해입니다. 아르헨티나 알바레스 병원 파견으로 시작한 원주민 대상 선교는 25년, 중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중국 대학에 수녀님들이 입학한 것이 20여 년 전이 됩니다. 현재 여섯 나라에 34명이 파견되었습니다. 양적으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수녀님들의 열과 성으로 조금씩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은’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주님과 설립자의 뜻에 따른 이 예언적 사명이 뿌리내리도록 수녀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숙고해야겠습니다.



공식 명칭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위치 : 인도차이나반도 동부
수도 : 하노이
인구 : 95,261,021명(2017)
언어 : 베트남어
종교 : 불교, 가톨릭
정체·의회형태 : 사회주의공화제/ 단원제
기후 : 열대몬순성 기후





01 북부 다랭이는 무강차이

베트남은 중서부를 통과하며 남북으로 뻗은 안남 산맥, 북부의 홍강 삼각주, 남부의 메콩 강 삼각주, 동부의 해안평야 등 지형상 4부분으로 나뉜다. 가로로는 최대 1,650Km, 세로로는 600Km에 달하는 지형 특성상 평지와 강줄기가 풍부한 남부 지대에는 베트남 최대 곡창지대를 차지하고 있어 개방적이고 낙천적이다. 산악지대가 대부분이며 4계절이 있는 북부지역 사람들은 근면 성실하며, 상대적으로 기후가 열악한 중부인은 인내형의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과 유사한 가족 중심 사회로, 가족애와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시하고 체면을 중시하기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이나 꾸지람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지식과 배움에 대한 열망과 사회적인 존중의 분위기가 생활화되어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높은 지식과 학력에 대한 선망과 위상이 높다.

우리처럼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들과 많은 전쟁으로 수난을 겪었지만 민족과 언어를 잃지 않은 나라이다.

손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며, 주식은 쌀과 국수(피, 분짜)이다. 특히 쌀로 얇게 종이처럼 만들어 말려 놓은 라이스페이퍼(월남쌈)로 생채소를 싸 먹고 향과 초를 많이 사용하며 배추, 무, 상추, 고추 등의 채소와 함께 대부분의 음식에 고기를 넣어 먹는다. 또한 브라질에 이어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으로 아시아에서 커피 문화가 가장 발달된 나라 중 한 곳이라 볼 수 있다. 아침식사 전후로 커피를 마시며 주로 커피에 연유를 넣어 차갑게 마시는 ‘카페(커피) 쓰어(연유) 다(얼음)’를 즐긴다. 한자 문화권이라 한자 이름 표현이 가능하며 성과 이름을 삼음절로 표현하는데 성별을 구별하기 위해 성과 이름 사이에 남자는 Van(반), 여자는 Thi(티)를 사용한다. 54개의 소수 부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인구의 86.2%를 낀 족이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수민족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며 학교에서는 베트남어를 배우고, 대체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그들만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02 커피 생산하는 농부

베트남 역사는 BC 200년경 세워진 남베트 독립 왕국이 중국에 2차례 정복되었다가 물리치고 양분되었다가 1802년 통일되었다. 그러나 1883~1939년 프랑스의 식민지로, 1939~45년 프랑스 속령으로 지배를 받았다. 공산주의자 및 민족주의자들이 호치민(胡志明)의 영도 아래 베트남 독립을 선언했다. 호치민은 30여 년 간 베트남 민족운동의 지도자로서 아시아의 반식민지 운동을 이끌었으며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공산주의 지도자이기도 하였다. 프랑스와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치렀고, 이 전쟁은 1954년 5월 7일 베트남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제네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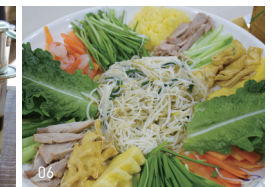
03 분짜



04 피



05 쓰어다



06 월남쌈

협정에 따라 베트남은 소련이 지원하는 북부와 미국이 지원하는 남부로 분할되었다. 그러나 북베트남의 게릴라 활동과 남베트남의 친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은 미국의 개입과 베트남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1973년 휴전이 되고 미군이 철수했으나 1975년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을 공격했다. 그 결과 남베트남 정부는 붕괴되고 1976년 7월 2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통합되었다. 이후 마오쩌둥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와 전쟁을 치렀고 중화인민공화국과도 국경분쟁으로 중국-베트남 전쟁을 치렀다. 1980년대 이후 도이 머이 정책으로 서방 세계에 문호를 개방하였다.

한국과의 관계는, 베트남이 통일되기 전 한국은 남베트남과, 북한은 북베트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한국은 그 후 1964년 베트남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해 1975년 사이공이 함락되기 직전까지 남베트남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남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사이공이 함락되기 직전인 1975년 4월 29일 폐쇄되었고, 그 밖에도 베트남 전쟁 특수를 타고 한국 기업의 진출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으며 남베트남 파견 한국인 문제와 국제결혼으로 인한 한국인·남베트남인의 혼혈아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남베트남 정권이 무너지고 베트남이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된 후 북한은 이전 북베트남 시절에 맺었던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베트남 통일 후 17년 만인 1992년 12월 22일 수교에 합의했다.

종교에 있어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종교정책을 쓰고 있으나 실제로 베트남 정부와 공산당의 정책에 협력해야만 한다. 전체 인구의 18.23%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 가톨릭은



07 통일궁



08 베트남 소수민족



09 성소주일 행사



10 성소자 여름 연수 - 노틀담 대성당 앞에서

36.3%로 전체 인구의 보통 7.5%에 해당하고, 현재 가톨릭 교구는 3개의 대교구(하노이, 후에, 사이공)와 23개 일반 교구로 구성된다.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교구는 1659년에 설립된 하노이 교구이며, 가장 최근에 설립된 교구는 2005년에 신설된 바리야 교구이다. 영세자들은 대부분 유아세례를 받으며 사회주의 국가인 관계로 가톨릭으로 개종할 경우 자녀교육 등 다른 여러 분야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성인 세례자 수가 많지 않다. 또한 교회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사제 서품은 각 교구마다 연 12명 정도로 제한하고 본당 신부를 임명할 때도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03년부터 현지 수도자들에게 수도원에서 살도록 했으며 수도복 착용도 허용했다. 그러나 외국인 수도자들은 수도복도, 선교활동도 금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11 입회 할 자매들과 판 신부

〈성가소비녀회의 베트남 선교〉

성가소비녀회 베트남 선교의 시작은 2009년 행정팀에서 해외 선교지를 물색하던 중에 베트남을 선교지로 선정하게 되었고, 류 베르뇌시메온 수녀에게 베트남 선교 의향을 타진하자 흔쾌히 승낙하였습니다. 행정팀은 이를 받아들인 류 수녀에게 관련 정보에 대해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여러 '통로'를 통해 알아보고 있을 때 고교시절의 은사께서 베트남에 계시다는 여

고동창생의 말이 떠올라 당시 고3 담임선생님께 전화로 문의, 마침 국제홍방대학교 한국어과 교수로 재직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침 9월에 교환학생 문제로 한국에 오신 선생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국제홍방대학교 어학당 한국어 교사로 초청 비자를 받아 10월 30일 베트남 선교를 떠나게 되었다. 그 뒤 혼자서 2년 6개월의 시간 동안 하느님의 여정을 통하여 베트남 선교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2012년에 이 모린 수녀와 김 미카엘 수녀가 현지에 파견되었다. 이곳은 외국 선교사들의 선교가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도직을 모색하다가 과거 가톨릭에서 운영해오던 교육과 사회복지사업은 사회주의국가로 통일되면서 모두 정부 공공기관으로 이관되었고 현지인 수도회도 본당이나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허락되었기에 한·베 가족(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결혼) 자녀들을 위한 한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2 빈증 한글 학교 개교



13 한글학교 새싹반



14 한글 캠프

먼저 사이공 한글학교의 분교인 빈증 한글학교 참관수업과 운영방안을 위한 교육을 수료 후에 빈증 한글학교를 인수받게 되었다. 원래는 빈증 대학교의 한글학과 강의실을 이용하던 것을 2013년 8월 31일에 현재의 장소에서 개원하고 2015년 3월에 빈증 한글학교로 한국 영사관에 정식 등록하였다. 지역으로는 호치민 시내보다 교육 혜택이 부진한 중·소도시 빈증성을 선정하게 되었는

데 이 지역은 신도시 개발과 함께 산업단지와 기업단지들이 형성되어 한국인 중소기업들이 다양하게 자리 잡고 있어 한·베 가족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베트남 여성들도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가 한국 못지않게 적극적이라 한국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 승용차나 오토바이로 2~3시간이 소요되는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현지인들도 한글 교육받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한·베 가족에 한해서만 기회를 주고 있다.

비록 수도자의 신분을 숨겨야 하고 복음 선포를 위한 선교는 제한되었지만 소비녀가 만난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나누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인자하신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 특히, 설립자 신부님의 정신대로 가장 필요로 하다고 여긴 한글학교와 함께 나름대로 수도 성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과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기도 모임을 마련하고 한글학교 방학 기간에는 전체 성소자 캠프를 열어 그들의 성소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2015년 10월에 2명의 자매가 성가소비녀회 입회를 하게 되었고 현재 8명의 자매가 총원 지원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심을 보게 된다.

짧은 베트남 선교 역사 안에서 한·베 가족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한글 교육과 젊은이들과의 친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15 어머니교실(요리실습)

16 한글학교 수료식

17 닥농 지역 방문 - 장학금 전달

18 베트남 지원자 자매들



01

01 수업(새싹반)

수녀님은 베트남 사람

베트남 빈증
류 베르뇌시메온 수녀

요즘 제가 종종 듣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도 가장 많이 되물어 보는 말입니다. “내가 베트남 사람이라고?” 어찌 보면 현지에서 잘 적응하고 베트남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며 현지인들의 도움 없는 살아가기 힘겨운 이방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 못지 않게 베트남을

사랑하고픈 마음은 간절합니다. 무엇보다 언어, 식습관은 물론 셀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세상 속에 살면서 김치를 제일 좋아하고 한국의 익숙해진 습관들을 바꾸지 못하고 있음을 보면서 이곳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참아주며 기다려주고 있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저희 공동체는 빈증(호치민에서 2시간 정도)에 한·베가족의 아이들에게 한글과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 주는 ‘빈증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토요 학교로 운영되었지만 저희가 운영을 맡으면서 그 동안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주간 오후에는 공부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하는 한글공부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려워 공부방에서 복습을 하면서 보충하고 있으며 어머니교실을 열어 한 달에 한 번 요리 선생님과 함께 한국 음식을 만들고 식사하는 예법과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처음 한글학교를 열었을 때 어렸던 친구가 단정하게 교복입은 모습을 보면 마치 내 자녀의 성장을 보는 듯 한 설렘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늘지 않는 언어와 씨름을 하는 학생들 모습에서 언어와 성장은 별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20여 명에서 지금은 30여 명이 넘어 세 반(새싹반, 꽃잎반, 열매반)으로 운영하는데 활기와 기쁨으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국말로 썼을 때 부모님과 함께 환호의 박수를 받고, 때론 한국말로 자신의 꿈을 토박토박 발표하여 모든 학생들의 부러움을 받기도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 한국은 아버지의 나라일 뿐이고, 한국말은 제3국어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곳 호치민(옛 사이공)에는 저희에게 빈증 한



02 학생명단

글학교를 연결해 준 사이공 한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며 학생들도 80여 명이나 됩니다. 2년 전까지는 이 학교의 분교였습니다. 그러나 빈증 한글학교가 지역적으로 도시에서 떨어져 있고 한·베 가족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곳곳에 한·베 가족들이 많이 있고 학부모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아픔들을 많이 안

03 수업(꽃잎반)



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서 느끼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한 어머니교실을 하면서 그들의 또 다른 사정들을 접하면서 녹녹치 않은 국제결혼의 실태를 가까이서 보게됩니다. 부모의 나이차가 보통 20살 정도가 되고, 한국 아버지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모습들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과연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여러 고민을 하면서 실마리를 찾아가

고 있습니다. 지나친 궁금증을 지양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며 우리에게 보여 주는 만큼만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들이 좀 더 한국 말을 잘 배워서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기쁨과 사랑을 전달하는 축복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물론 베트남 아이로서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행복한 미래의 주인공으로 자랄 수 있기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베트남 빈증
이 모린 수녀



01 성소자 여름 연수

베트남에서 1년 9개월 간의 소임을 마치고 종신서약을 위해 귀원하였습니다. 서약 후에 다시 이곳으로 파견을 받고 벌써 2년 6개월의 시간을 과거 속으로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파견되었을 때 보다 오히려 알고 있는 사실들로 조금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게다가 성소자 담당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수녀님들이 베트남에 성소자가 많

은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부족한 내가 그 일을 맡은 자격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라는 생각보다는 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공동체 수녀님들의 협력으로 2015년 10월에 2명의 자매가 우리 수도회에 입회하였으며 2016년에 2명, 그리고 올해 4명의 자매가 성가소비녀회의 가족이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02

02 빈중 성소자 모임

빈중 성소자 모임

4년 전 호치민 인근 지역인 빈중으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된 모임으로 한 달에 한번 대개 3~7명이 참석합니다. 함께 목주기도를 바치고 전례에 해당되는 작업과 짧은 묵상과 나눔을 1~2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합니다. 아직도 어설픈 저의 베트남어를

이해해 주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주는 친구들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면서 언어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매월하는 모임이지만 매번 가슴 떨리고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작업 위주로 했지만 주제는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10시에 모임을 시작했었지만 거리상 오토바이로 1시간 이상 소요되기도 하고 성당에서 교리교사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 매달 마지막 주일 11시로 모임을 변경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점심 식사 후에 진행하는데 이곳은 더운 날씨라 아침 일찍 시작하기에 점심은 11시에서 11시 30분에 합니다. 모임을 위해 수녀님들이 새로 김치를 담그고 맛깔스럽게 점심을 준비해 주는데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식사 시간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닥농 성소자 모임

닥농은 가난한 시골 지역으로 주일 미사 후에 친구들을 만나려면 밤에 출발해야 합니다. 닥농까지의 거리가 멀어서 아침에 출발하면 오후가 되어서야 도착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당일엔 모든 일을 마치고 저녁 8시 버스를 타야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버스에서 내리면 불빛이라고는 거의 없어 칙칙 그 자체이며 하늘을 수놓은 별들은 마구 쏟아질 것 같은 별천지의 세상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때로는 먹이를 찾는 산돼지도 만나기도 합니다.

베트남에는 54개의 소수 민족이 있는데 도시에서 좀 벗어나야 만날 수 있으며 같은 부족끼리 주로 모여 살고, 자신들만의 풍습과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베트남어를 배우게 됩니다. 닥농은 소수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결혼해서(어린 경우는 14~15세) 많은 아이를 낳고, 태어난 곳에서 자라며 고향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커피 농사, 후추 농사, 아보카도, 혹은 찐자이(레몬 종류)를 재배하는데 땅을 빌려서 농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다 아이들과 손을 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 중·고등학생임에도 손바닥에 굳은살이 많아 미안한 마음이 들곤합니다. All my kids(“모두 나의 아이들”이란 뜻으로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이 교육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단체)를 통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러 가게 되면 보통 6~7명의 아이들과 만나고 그때 성소자 모임도 함께 합니다. 베트남은 지역에 상관없이 가족의 개념이 굉장히 넓고 친밀해서 가족과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든 일입니다. 도시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시골에서는 더 힘든 선택이지요. 저희들이 눈여겨 본 성소자가 있었는데 한국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라서 결국 베트남 수도회에 입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심은 하나님의 권한이기에 모임을 통해 성소의 꿈을 키워주고, 장학금도 전달하고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어색해 하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만나면 “chao so- 짜오 씨(수녀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도시보다는 따뜻함이 많이 베

어 나오기에 저희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성소자 여름 연수

베트남은 유럽의 학기제처럼 운영되는데 보통 6월 말이나 7월 초에 대학 시험이 있고 새학기는 9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번 7월 초에 3박 4일(첫 해에는 5박 6일) 성소자 여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수는 가까운 지역보다 먼 곳에 있는 성소자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년 정도는 주로 탁농에서 많이 참여 했는데 도시에는 거의 가보지 못한 친구들이라 호치민 시내를 구경하고, 처음으로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한글 공부도 했습니다. 신부님이 성소에 대한 강의와 미사도 집전해 주십니다. 입회 여부를 떠나서 같은 마음을 지닌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의 성소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올해에는 준비를 하면서도 모임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데 연수를 마치고 나서 “자리를 마련하는 건 우리이지만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모임에 참석했어도 다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실망이 컸었나 보아요. 그들을 만나면서 성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저의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처음의 서먹함이 마지막 날에는 헤어짐에 대한 서운함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습

니다. 고등학교 1학년년부터 참여하는 성소자 여름연수는 2~3개 그룹으로 나누어 함께 생활을 합니다. 자매처럼 서로서로 챙겨주고 따르는 모습이 참 예쁘답니다. 짧은 기간의 만남이었지만 헤어짐을 아쉬워 하며 눈물로써 하는 인사도 모두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성소자들과 함께 살기

한국과는 달리 수도 성소를 결정한 성소자들은 입회하기 전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하느님을 따르겠다는 열망은 있지만 수도생활을 모르는 자매들에게 다시금 선택의 기회와 한국에 가기 전에 적응하는 시간을 주는 것이지요. 성소자 여름 연수 이후 2~3개월 정도 공동생활을 하면서 한국어도 배우고, 한국 음식에도 조금씩 익숙해져 갑니다. 한 달 정도 생활하고 나서 자신의 성소를 재확인합니다. 확정되면 입회 시 필요한 서류 준비와 함께 다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때론 성소자들과 생활하는 것이 버거울 때도 있지만 함께 주시는 기쁨도 있습니다.

언젠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묵상 나눔을 하였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라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고유성을 찾으라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 나 자신에 대한 고유성을 확신하고 신랑에게 그런 나를 확인 받고 잔치집에 들어가는 것을 묵상하면서 이 친구들도 주님이 주신 자신의 고유성을 찾고 기쁘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라게 되었



03 입회 전 공동생활(성모승천 대축일에)

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런 이상을 실천하기 쉽지가 않음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저의 소망이 조금씩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베트남에는 하느님만이 알고 계실 정도로 많은 수도회가 있습니다. 방인 수도회, 국제 수도회도 많습니다. 성가소비녀회 리플렛을 받아 보고 제일 놀라는 것이 회원수입니다. 그리고 93개나 되는 많은 공동체가 어떻게 경제적인 것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공산당 사회체제에서도 수도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 한계가 많이 있지요. 대부분 수도회가 학생기숙사, 유치원 혹은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다른 사도직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호치민 같은 대도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가난한 지역으

로 가는 것은 정부의 통제 아래 있게 되므로 마음대로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이 엄청 까다로운 그들의 현실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영어를 선호하고, 관심도 많습니다. 베트남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수도회는 방인 수도회라서 한국어를 배워야 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매년 입회자를 보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성소자 모임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매일 용기를 낼 수 있음은 또 다른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하지만 결과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성소자는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베트남 빈증
김 온유 수녀

3월 초순,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는 우리나라를 떠나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 내리니 따가운 햇볕과 후끈한 열기가 제일 먼저 반겨주었다. 오래된 듯한 거리를 지나 기숙사로 오는 길은 까마득하게 뻗어 올라간 가로수들과 그 아래 빼곡히 노랑꽃들이 줄지어 있고 도로에 꽉 찬 오토바이들이 거대한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다. 이제 내가 몸담고 살아야 하는 나라, 베트남이다.

공동체 수녀님들이 베트남 샬트르 바오로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를 예약해 주어 숙소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익숙했던 한국 생활과 다르더라도 기꺼이 모든 어려움을 잘 견뎌야지”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기숙사 환경은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우선 학교까지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로 시내와 가까우며, 수녀원 안에 성당이 있고, 기숙사 밥을 사먹을 수 있고, 방에는 선풍기가 천정에 달려 있고, 수녀원 침방에서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에어컨까지 있었다. 환경 보전과 절전에 관심이 있던 우리 정서 때문에 에어컨은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첫날밤부터 열기로 인한 고통이 시작되었다. 방충망 없는 커다란 창문이 두 개 있지만 바로 큰 길옆이라 소음과 매연, 그리고 벌레들 때문에 열 수가 없다.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는 너무도 요란하여 사용할 수



01

01 무이네 모래 언덕

가 없고, 모기장까지 치니 찜질방이나 다름이 없었다. 나이론솜 베개까지... 잠을 청하려고 뒤척거리다가 일어나 샤워하고 다시 잠들고 깨기를 반복하다가 어쩔 수 없이 잠깐이라도 에어컨을 이용하게 되는 베트남 생활이 시작되었다.

처음 파견된 곳인데 웬지 오래 전부터 살아온 듯 맘이 편안했다. 이 평온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선교를 준비하면서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챙겨주고 격려와 축복의 편지도 전해 준 수녀님들과 가족, 부족한 나를 이곳에 파견한 수도회 그리고 뜨겁게 환영해 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동체 수녀님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어우러진 편안함이 아닐까 싶다.

순간의 기적

매주 토요일은 빈증 공동체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에 돌아온다. 어쩌다 늦게 돌아가게 되면 평상시 이용했던 차편이 끊겨 중간에 차를 갈아타 호치민 시내 초입 터미널까지 와야 하고 다시 길을 건너 버스를 타야하는데 이 때가 고역이다. 시내에는 늘 오토바이와 차로 인해 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터미널 앞에는 신호등이 없어 좀처럼 길을 건너기가 힘든 곳이다.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동둥거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오토바이를 끌고 있던 아저씨가 손짓을 하였고 그분의 안내에 따라 차도를 건널 수 있었다. 아저씨는 차량 물결을 막아주는 독이 되었고 마치 나는 모세의 인도에 따라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 같았다. 무사히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

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바로 돌아서 가시는 뒷모습을 보았다. 매번 이 길을 갈 때마다 고마운 손길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오랜 시간의 기적

언어를 배우기 위해 호치민 인문사회대학 베트남어학과를 다니게 되었는데 같은 반 학생들의 국적도 다르고 연령층은 젊은이부터 노년까지 다양하였다. 나는 거의 노년에 가까웠다. 어떤 이는 친구가 되기도 하였지만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 만남 중에 특별한 인연이 된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Han) 선생

말을 배우는 기간 중 절반은 현 선생님과 함께 했다. 중급과정부터 시작했는데 교과 내용이 그동안 배웠던 생활 회화의 수준을 넘어서 여러 측면의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교과서 내용들에 대해 얕은 지식만으로 진도를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상을 들여다보고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 열심히 마음으로 공부하였다. 이 마음에 더욱 불을 당겨 준 것은 강의를 맡은 현 선생님의 진솔한 모습이 한 몫을 하게 되었다. 취미, 직업, 시간 사용, 외모와 성품, 건강, 공부, 돈, 기념일에 해야 할 일들, 의복, 집과 가족, 좋은 추억, 결정해야 할 순간들, 노동과 직업, 교통문제, 농촌과 도시문제, 건강관리, 문화와 풍습을 다루고 또한 그 주제에서 파생하는 깊고 다양한 부분들도 함께 다루었

다. 의견을 발표하고, 문장을 만들고,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들의 나눔에도 공감해 주셨다. 공부를 하면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내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던 베트남에 대한 우월감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고 베트남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존중하고 이해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60세를 바라보고 있으며 큰 키에 늘 원피스와 단발머리를 하고 상냥함과 인자함이 넘치는 시선으로 만나는 이들로 하여금 경계를 풀게 하였다. 처음 수업 할 때부터 교과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한결같은 자세였으며 마치 지금 하는 수업이 제일 중요한 듯 혼신을 다하였다. 또한 수업 중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배운 것을 인용할 때는 대답을 해야 한다. 단순히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라 학생이 충분히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베트남 음식을 모른다고 하면 영상으로 보여주고, 만들지 못하는 것은 요리법을 설명해 주고, 때론 학생들이 직접 맛을 볼 수 있도록 마련해 준다. 그녀의 성실함, 제자 사랑과 존중 그리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마음이 전해져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존경하게 되는 선생님이다.

아담 신부

나보다 4개월 정도 먼저 베트남에 오신 팔로티회 폴란드 신부님이다. 외국 사제나 수녀들은 정부에서 통제하여 수도복을 착용할 수 없고 정해진 지역 내에서만 활동이 허락된다. 학

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녀님들도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사제들도 예외는 아닌데 아담 신부님은 처음 소개할 때부터 가톨릭 사제라고 공개하였고 자연스런 기회에 신부님은 내가 수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부님은 명랑하고, 늘 흥얼거리며, 먼저 말을 건네면서 활짝 웃는다. 강의 듣는 학생들이 한국인 이거나 일본인 인데 유일하게 유럽 사람이다. 전체 학생들의 이름을 파악하여 먼저 부르고 수업이 끝나면 모두 함께 차를 마시도록 초대한다. 행여 여행이라든가 다녀오면 선생님 과 친구들 선물도 챙겨주는데 선물을 받은 일본 학생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모두에게 부채를 선물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도 열심히 들어 주고 함께 나누어 주는 짧은 묵상 글은 약한 이들에 대한 따스한 애정 고백이 전해졌다. 신부님은 강의실을 단순히 배우는 공간만이 아니라 인정이 흐르고 삶의 의미를 나누는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었다.

신부님은 혼자라는 이 낯선 공간 속에서 만난 하느님의 선물이었다. 베트남어와 영어로도 제대로 대화할 수 없었지만 친구가 되어주었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격려하고 신뢰를 심어 주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영혼이 귀하다는 것과 존중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또한 일상의 모든 사건들을 기념하는 것에 열심이고, 공부하는 동안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성사 후에는 회개(?) 기념으로 차를 대접해 주었다. 스승의 날에는 반 친구들 모두

의 손 글씨로 정성들여 만든 카드를 현 선생님에게 전해주는 일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물론 내 축일에도 직접 손으로 쓴 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아주 사소한 일상을 크게 여기고 기쁨과 어려움은 마음을 다해 함께 해주었다. 신부님은 모든이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수도생활과 신앙, 고민이나 문제 등을 대화하고 그 과정에서 그분의 신앙이 전해졌으며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긍정적인 자세와 세상을 품으려는 따스함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는 생생한 기운이 전해졌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어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만남을 허락하셨기에 내게 부족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 나갈 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던 것이다.

후엔

샬트르 수녀회 기숙사에서 함께 사는 베트남 대학생으로 언어를 배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언어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현지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대화가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 누구보다 여러 면에서 대학생이 가장 좋은 조력자인데 그들 역시 공부하는 학생이므로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그동안 여러 학생들에게 양식을 얻듯이 조금씩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후엔을 만나게 되었다. 그날 역시 도우미를 찾고 있다가 강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두 명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오전에 오면 도와 줄 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행운인가! 4학년 학생이 바쁘면 또 다른 학생



02 성모의밤에 참석한 후엔

이 도와주었는데 그녀가 후엔으로 1학년이다. 후엔과 일주일에 한 번 아침 8시에 만났다. 벌써 땀이 나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래도 한결같이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반겨주었다.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더 쉽게, 더 자세히 설명을 한다. 어떤 질문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하고, 분명하지 않은 발음에 대해서는 바로 지적해 주고 정확하게 소리낼 때까지 반복을 시킨다. 이 시간 만큼은 꼼꼼하고 엄격한 선생님이 되기로 마음먹고 행동하고 내 실력이 좋아질 때 까지 기다려 주는 넓은 마음까지 있었다. 틈틈이 베트남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고민, 학교 생활, 가족 이야기 등을 하여 베트남 청년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지금까

지 타인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보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기에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려고 하자 “이 만남이 행복하고, 외국인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며 손사래를 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 수고와 대가가 필요불가결한 연관이 없음을 후엔을 통해 다시 배우게 되었다. 그동안 이웃들로부터 받은 도움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거저 받아왔음에 대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수많은 사람 속에서 이런 귀한 인연을 허락한 것은 엄청난 선물이었다. 현 선생님과 아담 신부님, 그리고 후엔은 나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마치 나그네를 맞아들이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하느님의 사람들처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었다. 무엇보다 나를 하느님의 사람이 되도록 일깨워 주고 감사의 마음을 진심으로 느끼도록 가르쳐 주었다. 그들에게서 받은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귀를 기울여주고, 계산하지 않고 내어주는 것으로 권위적인 것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태도였다. 이 좋은 만남이 앞으로 다가 올 시간 속에서 이정표가 되어 하느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살아 갈 시대와 영토를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지만 하면 만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서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계십니다.”

— 사도행전 17,26-27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 요한 15,14



베트남 빈중 이 기쁨 수녀

베트남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입니다. 10년 전 코이카로 활동하던 언니를 찾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던 나라, 그때 하노이 성요셉 성당 주변 호수를 거닐며 느꼈던 포근함이 기억되어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가고 싶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10년이 흐른 지금 베트남 남부 호치민에 있는 성바오로 수녀원 기숙사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라는 새로운 소명을 안고 오게 된 이곳은 그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지만 첫날 잠자리에 누워 항상 지니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듯 사랑으로 돌보시며 이끄시는 주님의 자비로움에 마음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들 가운데에서 일상과 문화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모든 것을 적응해야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현지 음식과 문화를 가능한 많이 접하고 싶었으며 다행히도 여러 음식이 잘 맞았고 탈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은 간단하게 길거리 음식



01 음료를 파는 언니



02 베트남식 바게트 반미

으로 해결합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베트남식 바게트 빵 ‘반미’는 프랑스 식민지하에 있던 시기에 들어온 것으로 독립한 이후에는 베트남 전쟁을 치르면서 식량 부족으로 일상 식에서 거의 사라지는 듯했지만 1980년대 중반 경제 개혁을 위한 베트남의 개방 개혁 정책이 도입되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시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식 스프링롤 ‘짜조’는 오랜 기간 잦은 침략과 지배를 받아 온 중국의 영향을 받아 발전하게 되었고, 젓가락 문화나 중국식 도구를 이용한 조리법 등이 정착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음식을 통해 문화뿐만 아니라 역사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 새삼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호치민에 있는 인문사회과학 대학교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베트남어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그 안의 아픈 과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에 병합된 바 있었고, 독립 이후에도 중국과 깊은 교류를 가지면서 그들의 언어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통시대는 문자가 없어서 한자를 차용하였는데 이 때문에 로마자 베트남어가 만들어지고 보편화되기 전까지 한자에 의존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의 베트남어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지리상의 발견과 기독교 선교라 할 수 있습니다. 선교활동에서 가장 큰 장벽이 언어이기에 선교사들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문자화에 전념했고 그 결과로 17세기에 라틴어로 된 베트남어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인들의 한문 숭배 사상에 밀려 오랫동안 경시되어 오다가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 완성 이후 프랑스 식민당국이 지배의 효율화를 위하여 근대적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과거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형태로 베트남 교육을 개혁하면서 현재의 베트남어가 국민 속에 널리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베트남어는 외국인들에 의하여 창제되고 발전된 특이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교에는 중국, 일본, 칠레, 호주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는데 한국인이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많은 것에 조심하게 되는데 수도자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한편으로는 수도자에 대한 호기심이나 어떤 선입견 없으니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인간 관계를 위하여 남들보다 일찍 등교하여 학교 내에서 청소하는 분



03

03 수녀원 기숙사 기도실

들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간단하게 가장 친한 친구인 응오 티끼에우 비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여 '규비'라고 지어주었더니 매우 마음에 들어 하였습니다. 규비는 한국어학과 1학년이며 20살을 앞둔 활발하고 적극적인 친구입니다. 만남의 시작은 교환학습을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하루에도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는 단짝이 되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점심 맛있게 먹어요. 잘 자요.” 등 일상적인 인사와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이나 마음 상했던 일, 기쁜 일, 이슈 등을 공유하며 모든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에 7개월 정도 한국어 공부를 했던 규비는 곧잘 한국어로 말하고 어느 때는 한국어로 대화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 역시 언어를 배우

는 입장에서 손해가 아닌가 싶었는데 만남이 많을수록 규비의 성실함과 마음 씬씀이에 감동을 받기에 언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대신하였습니다.

규비는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 요즘 유행하는 노래, 다양한 과일 이름, 현지인들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음식들의 이름을 PPT로 작성한 과일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혼자였다면 알 수 없고 가

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장소도 친구 덕분에 경험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낯선 저에게 소중한 행복과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주어 더없이 고마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나터 득바, 락딘, 막띠너, 티응헤 등 성당이 많은데 수녀님들과 함께하는 수녀원의 미사만이 아니라 때로는 일반 신자들과 함께 미사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평화의 인사를 할 때 너무 경직되고 더위와 피곤에 지친 듯

04 인문사회과학 대학교 건물



05 호치민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원





06 응오 티 끼에우 비와 함께

한 신자들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의 평화를 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먼저 활짝 웃었더니 그제서야 부끄럽다는 듯 함께 웃어주었는데 그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선교사로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우리의 입장도 펼쳐버릴 수 없고, 무언가 거룩하고 정의롭게 온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존재로 경계 없는 진솔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무거운 짐 어깨 가득지고 오늘도 열심 중에 하루를

시작하는 베트남 상인과 인사하며 그들 안에 분명하게 현존하고 계시는 예수를 만나려고 합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로 빗줄기 같은 땀을 흘리며 일하는 노동자들을 통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전히 적당한 긴장과 두려움도 있지만 가슴 뛰는 설렘이 더 큼니다.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면서도 울타리를 벗어나 더 많은 것들에 부딪치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희망 가득 안고 하느님의 사랑이 널리 퍼져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늘 나라의 시민

아르헨티나 차꼬 아비아 떼라이 공소
오 클라우디아 수녀

차꼬에서 처음 맞이하는 여름은 마치 한증탕의 열기를 방불케 하는 찜통더위였다. 공소 신자 한 분이 시내에 나갔다가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온도계 수은주가 43도의 눈금까지 올라가 있었다. 그러면 체감온도는 50도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밖에서 들어오는 열기를 차단하느라 모든 문들을 닫아놓았지만 집안을 메운 더운 공기 속에서 선풍기 바람에 의존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그렇게 더위와 씨름하며 지내던 어느 날, 점심식사 후에 유난히도 크게 들려오는 착각 속에 전화를 받아보니 교구 주교님이 한 시간 이내로 방문하시겠다는 것이다. 무슨 일일까? 궁금증이 사라지기도 전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보니 구스파보 임시 본당 신부였다. 안으로 밀다시피 들어서면서 앉자마자 하신 말씀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포끼 신부가 심장마비로 선종하였다는 것이다. 며칠 전까지도 휴가차 이곳에 들려 함께 미사도 했었는데...



또끼 신부는 이곳에서 처음 배출된 서품 2년차의 젊은 사제였다. 많은 교우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온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이곳 공소에서 후배들에게 성소의 꿈을 키워주는 역할도 만만찮게 해왔었다. 멍한 정신을 추수를 새도 없이 두 명의 주교님이 오셨다. 또끼 신부의 사망 소식을 직접 어머니에게 전하겠다고 하시기에 함께 또끼 신부 집으로 향하였다.

집에 도착하자 영문을 모르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들을 맞이하였다. 인사를 나눈 뒤 곧 바로 주교님이 신부의 사망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얼굴을 가리며 큰소리로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식을 들은 신자들이 하나 둘씩 방문하면서 애도하는 사이에 우리는 공소로 돌아와 장례 준비를 서둘렀다. 저녁 9시쯤에 시신이 도착하여 보좌 주교님이

미사를 집전하였고 새벽까지 문상객들이 찾아와 고인의 명복을 위해 끊임없는 기도를 하였다. 문상객이라야 이곳 마을 사람들인데 아마도 모두 다녀간 듯싶었다.

이곳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부의금이란 것이 없으며 초상집에서 갖추어야하는 어떤 형식도 없었다. 상을 당한 사람과 함께 오열하면서 안아주고 애도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례집의 풍경인 밤샘을 하거나 큰소리로 얘기하고, 술을 마시는 일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간단한 음료수가 제공되며 아주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슬픔을 나누는 모습이다. 입관 예절도 따로 없고 다만 여름이라는 계절을 감안하여 시신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관 뚜껑을 뒀는다.

다음날 오후 5시에 장례미사가 있어 먼 곳에 있는 수녀들도 일찌감치 도착했고 작은 시골 공소에



주교와 교구 사제들이 모두 모여 마치 주교좌성당을 방불케 하였다. 평소에는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었는데 이날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사도예절이 끝나고 동료 사제들이 관을 들고 나가는데 갑자기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미사에 참석한 모든 이가 축제의 신평탄처럼 힘찬 박수로 고인을 떠나보내는 것이다.

“아,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들어가는 축하의 박수인가!”

근대의 라틴 문화는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아 왔다고 한다. 그중에 특히 장례 때

죽은 이가 우리와 함께 살아있고 동시에 하늘나라에 있다는 믿음을 축제로 승화시켜 왔는데 오늘은 그러한 라틴 문화의 일부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

교구 사제 묘지가 따로 없는 곳이라 마침 읍장이 뒷자리를 선뜻 내어 주었고 운구 행렬은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로 향했다. 또한 매장 풍습은 땅속이 아니라 땅위에 관이 들어갈 만큼 작게 벽돌로 쌓아 올리고 개인의 수준에 따라 지붕도 없고 유리창도 만드는 그야말로 죽은 이들의 작은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멀리서 보면 무덤이 아니라 흡사 작은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또끼 신부의 관이 들어가기 전에 트럼펫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다. 고인에 대한 마지막 묵념을 하고, 함께 따라왔던 이들이 길게 두 줄로 이어 관에 손을 대는 것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3명의 동료 사제는 끝날 때까지 기타 반주에 맞추어 성가를 불렀다.

선교사에게 그 나라의 문화는 ‘주제이며 지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외부적 현상이 아닌 그 저변에 깔려있는 보이지 않는 삶이 녹아 있는 문화에 접근한다는 것은 상호 관계성의 나눔과 공동체성을 형성해가는 의미를 띠기 때문이다. 이렇게 갑자기 선종한 젊은 사제의 장례에 참여하면서 죽음을 통한 부활 신앙을 체험할 수 있었으며 장례를 통하여 진정한 친교는 물질이 아닌 개인적인 친밀성에 있다는 것도 배울 수 있었다.



룩파 성을 아시나요?

캄보디아 꺄나옴
이 마리아 콜베 수녀

지난 해 그레이스 수녀님이 가정간호 활동을 막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성당에서 조금 먼 거리의 가정들을 찾아 다닐 때 늘 듣는 질문의 하나는 “룩파 성을 아세요?” (성 할아버지를 아세요?)입니다. 약 140여 가구(교적상 약 380명)에 이르는 가톨릭 신자들은 대부분 성당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당의 근거리를 벗어나면 거의 불교 신자가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수도복 입은 수녀를 보면 본능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음을 알고 있기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한결같이 물어보는 그에 대한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고 사제관 주방에 걸린 사진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는 프랑스인 신부였고 이름은 성(요한)으로 1975년 당시 이곳 꺄나옴 성당의 주임사제였습니다. 사진은 그가 마지막으로 조카에게 보낸 흑백 사진으로 1974년 성탄절



01

01 2017년 현재의 성당 모습



02 1974년 성탄절 쩀나움 마을 교우들과 프랑스 신부 그리고 성 신부

날 마을 사람들과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 속의 꼬맹이들 중 일부는 이제 중년이 되어 성당 가까이 살고 있는 교우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며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그가 얼마나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자든 비신자든 구분하지 않고 늘 어디선가 쌀, 소금, 설탕과 같은 양식들을 구해와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캄보디아의 농촌이 절대적으로 가난한데, 그 시절의 가난이 이 보다 더 했으리라 생각하면 그에 눈에 비친 가난한 이들의 삶이 그들을 향한 주님의 연민의 심정으로 다가갔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부님 자신도 매우 청빈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75년 크메르 루즈군을 이끌던 폴 포트(1925~1998)이 내·외국인들을 처형하고 추방하기 시작하자 바탐병 교구의 댕임 주교님은 성 신부님에게 프랑스로 돌아갈 것을 권고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관한 이야기들은 말하는 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비네이 본당 신부님의 말씀에 의하면, 젊은 댕임 주교님이 성 신부님에게 프랑스로 도피할 것을 권고하였을 때 성 신부님은 목자가 양떼를 버리고 떠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쩀나움에 남기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외국인이 탈출할 수 있는 기한이 넘은 후에도 성 신부님은 쩀나움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자 댕임 주교님도 쩀나움에서 은신하게 되었고 주교님은 성 신부님 그리고



03 1970년대 성 신부가 주임사제로 있던 시기의 쩀나움 성당

호주인 부부와 함께 태국에 건너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도 성당 옆에 살고 있는 루엄 할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이 그들을 차에 태워 트머폴의 버스정류장으로 데리고 갔기에 다른 누구보다 생생한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 따라 네 사람은 트머폴로 떠났고 거기서 태국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차를 탔습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그들은 모두 시소폰 근처 어느 숲 속에서 모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총살되었다 하고, 누군가는 둔기로 머리를 맞았다고 하는데 시신은 거두지 못했으며 증언을 통해 죽임을 당한 곳으로 짐작되는 장소에서 매년 5월 특별한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이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어른과 아이를 불문하고 많은 교우들이 꼬운(경운기)을 빌어 타고 시소폰지역에 갔습니다. 미사 지향의 주인공들은 지금까지도 쩀나움 교우들의 마음 안에 생생히 남아있고 이제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까지 그들의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문 중에 그레이스 수녀님이 만난 사람들은 비교적 성당에서 먼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수녀님에게 “성 신부님은 고마운 분이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던 때 유일하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녀님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은 성 신부님을 떠올린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꾀나옴은 구교촌이 형성된 몇 안 되는 마을이라 이 곳에 머물렀던 경험이 있는 사제나 수도자들은 한결같이 특별한 장소라고 여깁니다. 야생 숲이 전부였던 이 마을에 프랑스 사제들이 들어와 성당을 짓고, 논농사를 시작하면서 마을이 형성이 되고, 신자가 생기면서 교우촌이 형성된 것입니다.

바탐병에서 시소폰으로 가는 5번 국도에서 약 30분 정도(9km) 들어오는 이 도로가 생기기 몇 년 전만해도 비포장도로에 4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지도 몇 년이 안 되었습니다. 한국 본당에서도 볼 수 있듯이 특별한 행사나 기일 미사가 있을 때면 교우들이 성당에서 밥을 짓고 음식을 만들어 다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04 골육중으로 고통 받던 환우 '영'

현재 꾀나옴은 다른 농촌이 지닌 어려움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청·장년들은 태국에 일하러 떠나고 남은 어린이들과 노인들은 이들이 보내주는 돈으로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수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꾀나옴으로 일하러 왔지만 이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토지를 저당 잡히거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 불법노동을 떠나는 것이 해법인 듯한 분위기가 만연하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대부분 친척이나 조부모 슬하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나마 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운이 좋은 경우로 반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하루 끼니를 구할 여력조차 없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제관 자리는 옛날 성 신부님이 머물렀던 곳으로 이후 여러 사제들이 이 성당을 거쳐갔습니다. 2003년에 지금의 유치원을 겸한 사제관을 새롭게 지었고 사진에서



05 꾀나옴 성당의 역사와 함께 한 '하' 할머니 임종 보름전

처럼 그가 살던 시대에 있었던 나무로 된 성당은 이 후 같은 모양으로 다시 지어졌고 주일에는 약 100여 명의 신자들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3년 전 프놈펜에 있을때에 성가소비녀회에 대한 소개를 현지어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MEP(파리외방선교회) 신부님이 번역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수도회 이름인 '성가정의 작은 여중'을 번역할 때 "네악 범라오 포잇 따이 네이 꼬루사 더비손인데, 네악 범라오란 식당 종업원처럼 일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이 말 외에 선택할 다른 표현이 없다"고 하시며 수도회의 이름이 매우 특별하다고 하였습니다. 과거 정치적 이유로 가정 해체가 일어났고(폴 포트 시대) 이제는 경제적 이유로 다시 가정 해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수도회가 캄보디아의 가정을 위해 많은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직접 가서 노동하면서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 일하라"고 하신 성 신부님 말씀이 마치 오늘의 우리를 향해 던지는 화두 같았습니다.

폭폭 찌는 듯한 더위에 지쳐있다가도 해가 지고 저녁 밥을 먹고 나면 어디선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 한 줄기로 저도 모르게 다시금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게 됩니다. "선물 같은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주님!"



어머니날

볼리비아 비루비루 탁아소
김 마리비타 수녀

올해도 역시 예외는 아닌 듯 조용히 넘어 가지 못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기막힌 일들이 발생합니다. 매일 두세 건의 할렘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넘어뜨려 무릎이 까지고, 너무 세게 물어뜯어 손톱이 다 깨질 정도이니 비상약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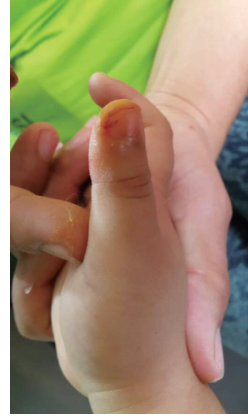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긴장 속에서 어느새 성큼성큼 다가오는 사건의 그림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날(5월 27일)을 맞이하여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린 친구 한명이 자신의 코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눈에 띄어 혹시나 하면서 확인해 보니 자신의 콧속에 구슬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황당하고 놀란 토끼 눈으로 이 사실을 전하러 온 교사와 함께 아이에게 달려가 보니 말 그대로 입니다. 박동이 빨라진 가슴을 진정하고 아이 엄마에게 알렸더니 바로 오토바이를 타고 오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고 나서야 다시 행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행사 시간이 다가 올 즈음에 엄마는 아이와 함께 탁아소에 오셨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이 지역은 포장인 길



라 비가 오면 어김없이 영망이 되는데 마침 얼마 전에 비가 와서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다 보니까 그 진동에 의해 콧속에 있던 구슬이 저절로 튀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기막힌 사연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웃으면서도 마냥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비가 오면 길 상태가 좋지 않아 불편함을 겪었는데 오늘은 오히려 그 덕을 보게 되니 말입니다.

어쨌든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모두에게 다행입니다. 이렇듯 하루하루 일상의 소소한 사건들로 긴장감을 늦출 수도 없지만 잔잔한 웃음도 덤으로 선사받게 됩니다.

오전의 걱정일랑 모두 내려놓고 다시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작년 어머니날에는 각 가정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오게 하여 함께 나누었는데 올해는 초대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들이 2~3명 있는 집에서 이 행사를 다 참석하다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한 과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당 튀김 만두 2개씩으로 정하고 음식 솜씨가 좋은 동네 자매님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 행사 시간 전까지는 완성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시간이 되어 찾으러 갔더니 그때서야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으면서 음식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휴~~ 주문한 만두가 다 만들어지면 가져다주겠다는 약속을 다시금 믿고 탁아소에 돌아왔습니다.

마침내 행사가 끝나고 간식 시간이 되었을 때 음식이 도착하기는 했는데 우리와 약속한 양의 1/2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음료수와 함께 한 개씩만 주었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는 소시지를 튀겨 주고 준비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도 나머지 음식 소식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결국 초대한 엄마들의 귀가를 배웅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혀를 끝끝 차면서 궁시령거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정리를 하다 잠시 멈추고 남은 음료수와 빵 조각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는데 그제야 튀김 만두가 도착했습니다. 자매님은 전혀 개의치 않은 표정으로 만두를 건네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 이곳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에 아무런 불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잔치를 다시 하게 되었는데 저희 공동체의 ‘한 가정 돌보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아이들과 아버지도 문제의 튀김 만두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처럼 미리 조각을 다 맞추어 놓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맞춰지는 상황들이 될 듯 말 듯 하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신기함으로 다가옵니다.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삶에서 느껴지는 느긋한 기운과 삶의 여유로운 문화 속에서 인간적인 격정과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난리(?) 속에서 탁아소의 제일 큰 행사를 무사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대로 깔끔하게….





볼리비아 해외선교 여정의 시작!

볼리비아 산 홀리안
정 호영베드로 수녀

산 홀리안 공동체는 볼리비아 동쪽 산타크루즈의 중부 해안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마을로 평야가 많고 지대가 낮으며 뜨거운 태양과 습함이 함께 공존합니다. 지금은 봄이 시작하는 계절(9월)이지만 벌써 30도를 넘어 한국의 한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합니다. 남미의 심장이라 불리



는 볼리비아는 남미 특유의 열정과 식민지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인지 이곳 사람들은 축제를 화려하게 보냅니다. 아마도 거의 대부분이 축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독립기념일, 산타크루즈의 날, 산 홀리안의 날, 성탄, 부활, 모든 성인의 날, 위령의 날, 성 야고보의 날, 성모님 축일, 성 베드로 축일, 각 단체의 날 등 이루다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큰 축일에는 반드시 행렬을 하는데 특히 볼리비아 독립기념일(8월 6일)에는 모든 학교와 마을의 단체들이 행렬을 참여하는데 그 모습이 장관을 이룹니다.

이곳에 와서 두 번째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을 위해 1년 동안 모은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비용을 쏟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모두 개인이 장만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명절인 설날에 설빔을 마련하는 것처럼 이날은 특별히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고 맘껏 뽐내기에 가난한 아이들은 행렬에서조차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행사는 3일 동안 이어지고 모든 마을이 축제의 장이 됩니다. 먹고 마시며 춤추는 동안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흥겹습니다. 이런 이유로 거의 3일 동안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새 음악소리가 그치지 않고 불꽃은 없지만 폭죽 터트리는 소리에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렬은 광장에서 하는데 시장님과 마을의 유지들이 선두에 서고 그 뒤로 유치부에서 고등부까지 마을에 속한 모든 학생들이 행렬을 합니다. 광장을 사면으로 한 쪽이 시청이고 다른 한 쪽에 성당이 있는데 이번 주일(주님변모축일)에는 10시 교중미사를 봉헌하지 못했습니다. 광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인하여 미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서의 행사에 참여하고 구경하느라 성당에 오는 신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가족들은 이 행사에 참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하고 아이들이 많으니 행렬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교복으로 입는 하얀 셔츠와 치마(바지), 그리고 구두를 준비하려면 최소 200Bs 정도의 비용이 들고 대부분의 가정은 2~3명의 학생이 있기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 이상은 필요로 하는데 이곳에서는 꽤 큰 금액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후원 받는 (All my kids, 후원금 등)것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아



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따른 갈등 또한 해결되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아이들만 생각하면 금상첨화라고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 가득하나 막상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느껴질 때면 뜻하지 않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볼리비아에 선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느낌 중의 하나가 바로 이들에게 ‘외국인 선교사들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느낌을 배제할 수가 없기에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늘 조심스럽습니다. 이들에게 과하다 싶으면 우리는 항상 주는 사람이 되어있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뻑뻑하게 대하면 마치 우리가 무엇인가 주는 ‘갑’의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믿을라 치면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하고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무슨 일인가 싶어 스스로에게 되묻곤 합니다.

아직 이들과의 대화가 서툴다보니 간단한 표현 외에는 알아듣는 것이 어려워 때문 오해를 하기도 하고 무시 받는 듯 한 착각도 들면서 가정 방문이 그리 쉽지 않은 않습니다. 오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번 그 싹이 트기 시작하면 신뢰에 조금씩 금이 가고 그러다 보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갈등과 맞서면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노력들이 시나브로 전해지면서 서로에게 다가설 수 있는 친밀감이 생기고 그 시간들은 서로의 끈을 이어주는 선물이 아닐는지요!

이들과의 관계는 가정 방문 시에 우리를 맞아들이는 모습 안에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의 문화와 정서를 모르고, 언어도 원활하지 못하고, 게다가 나의 성향이 받아들여지기까지의 시간이 지나서야 조금씩 익숙해지고 서로 이해하게 되면서 선교사로서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고 순간 순간이 행복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성당에 미사 하러 가는 길에 저 멀리서부터 “수녀님” 하고 부르면서 달려오는 코흘리개 꼬마들과 포옹하며 인사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럽게 체화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이 흠과 함께 땀과 거의 맨발로 다니기에 얼굴이 먼지 투성이인지라 서로 인사하고나면 수도복과 머릿수건이 아이들의 콧물과 흠먼지로 장식이 되지만 오히려 그 얼룩 때문에 그들과 하나가 됨을 알 수 있는 표정이 되는 것이기에 기쁩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주일 미사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이 약속이 지키지 않고 미사 마칠 때쯤 와서는 참석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며 거짓말이 분명하여 마음이 매우 불편하기도 하지만 때론 아이들이 거짓말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미안한 마음도 들고 후회도 됩니다. 이렇게 나의 오해로 인한 갈등이 해결되는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다시 신뢰의 벽이 두터워짐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해외선교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볼리비아 뿌에스토
김 로사리아 수녀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남미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성가소비녀회가 첫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뿌에스토는 공소사목으로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마을은 대개 콩, 옥수수, 쌀, 땅콩, 팔과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주민들은 이와 같은 농작물을 소농으로 하거나 사탕수수밭을 소유한 대지주 밑에서 일을 하여 주급을 받으며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이들은 이웃나라인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스페인으로 돈

을 벌기 위해 떠나거나 젊은 부부들은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약 6천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뿌에스토에서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첫영성체를 합니다. 지금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대개 각 가정마다 많은 자녀를 두어 매년 100여 명이 첫영성체를 하는데, 1년이었던 준비기간이 2년 전부터 2년으로 바뀌고 주일마다 교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주일학교가 따로 없어서 오직 첫영성체 준비기간에만 교리를 배울 수 있고, 첫영성체를 해도 견진을 받을 때까지 성당에 거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리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부모님들의 항의와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주교님들의 방침이고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좋지 않은가요?”라고 설명을 하면

서도 그들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적절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조배 중에 요한복음 6장 51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부모교육을 통해 이 말씀을 비유로 들어 설명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평균적으로 80~90년을 살아가면서 12년(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동안 학교 교육을 배우는데, 영원한 삶을 위해 필요한 첫영성체에 있어 2년이란 준비기간이 과연 길다고 할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주일에 2시간(교리 1시간, 미사 1시간)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첫영성체 준비는 교재를 중심으로 교리를 배우고, 매달 마지막 주일에는 환자와 독거노인 방문,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방문합니다. 또한 마을을 돌아다니며 휴지를 줘거나 기타 특별활동을 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1년 반과 2년 반이 연합대회를 하고 그 외에 주님의 기도를 비롯하여 29가지의 기도문을 암송하여 교사와 저에게 참고를 받는 것으로 준비기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비가 오면 배수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 물바다



로 변해버린 길 때문에 나올 수가 없고, 학교 행사와 마을 행사는 대부분 주일에 있어서 또한 참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지라 실제 교리를 배우는 데는 1년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많은 난항(또는 난관) 등을 겹쳐서 첫영성체 전 9일 동안은 남미의 주요 성모 과달루페 성모님을 모시고 묵주기도를 합니다. 더운 날씨로 5단까지 바치는 시간이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신앙과 희망을 갖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드디어 그리스도 왕 대축일!

첫영성체를 하는 친구들은 모두 하얀 투니카를 입고 여자 어린이들은 화관을, 남자 어린이들은 왼쪽 팔에 완장을 차고, 세례 갱신자는 초를 들고 입장을 합니다. 오전 9시에 도착하여 최종 연습을 마치고 좋아하는 간식도 못 먹어 지치기도 하지만 오늘날만큼 예수님의 삶과 피를 모신다는 긴장으로 신부님의 긴 강론도 열심히 듣습니다.

한국은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곳은 아이들이 많아 아주 희망적입니다. 한 가지 걱정이라면 “첫 영성체가 마지막 영성체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곳에 소임왔을때 첫영성체를 한 많은 어린이들이 그 다음 주일에 한명도 오지 않았던 놀라운 상

황을 경험하면서 매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커다란 숙제입니다. 하나의 해결책으로 첫영성체 기념장을 만들어 그 다음 주일 대림 1주에 미사를 나오게 하여 나눠 주거나 선물을 마련하여 전달하는 방법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와 같은 현상은 저희 공소뿐만 아니라 남미 대부분의 문화 아닌 문화라고 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많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매년 첫영성체 접수 시기가 다가오면, “올 해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첫영성체 후에도 계속 주일 미사에 참석하고 성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아닌 고민으로 시작을 합니다.



후원

선교 수녀들이여!

하느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중요하고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실로 중요합니다.

선교 수녀들이여!

더욱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가십시오.

가서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며,

가난한 교회가 되십시오. (설립자 신부)



설립자 성 신부의 말씀에 따라 성가소비녀들은

국내에서는 물론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중국, 볼리비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가난한 교회가 되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036101-04-030207 재)성가소비녀회

TEL. 02)940-5815, 5816

※ 입금 후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을 생각해서 재생용지로 인쇄합니다.

해외 선교 지역

중국 형주 상록촌

434030 中国 湖北省 荆州市 荆州区 八岭山镇
八岭山麻风康复中心 李香兰修女 收

중국 분양

032203 中國 山西省 汾陽市
汾阳三皇庙巷 39号 天教堂

필리핀 빠라나케

3822-C Mabini Dongalo, Parañaque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캄보디아 바탐방

Pet Yiey Chee Catholic Compound Rumchek 1 Village,
Rattanak
Commune, Battambang District, PO Box 330,
Battambang, Cambodia

볼리비아(뿌에스또, 산 홀리안, 비루비루 탁아소)

Las Pequeñas Siervas de la Sagrada Familia
Casilla 25, Santa Cruz. Bolivia

아르헨티나 한인성당

Parroquia de los Santos Mártires Coreanos
Thorne 1261 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아르헨티나 차코 아비아 페라이 공소

Capilla N.Sara del Rosario Casa de las hermanas
3706 Avia Terai Chaco, Argentina

아르헨티나 알바레스 병원

Aranguren 2701(Hosp. Alvarez)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아르헨티나 예바 페론 병원

Capilla del Hospital Eva Peron Nuestra Senora de Lujan
Balbin (101) 3150
B1650 NBN San Martin
BS. AS. Argentina

베트남 빈증

7, đường lo so 2- khu TDC Phu Hoa,
Khu 7, Phường Phú Hòa,
thị xã Thủ Dầu Một,
Tỉnh Bình Dương, Vietnam